

수업 혁신의 숨은 고수는 누구?

도교육청, '미래교육 여는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 양현고 최민지 교사, 개인부문·미찾샘, 팀 부문 '대상'

'2023년 미래교육 여는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 15일 전주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중심 활동수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자신의 수업을 용기있게 나누고자 하는 교사들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7개 팀, 14명의 교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본선 경연에 오른 7개 팀은 사전 수업동영상 심사와 본선 경연 발표 심

사, 교원들로 이뤄진 온라인투표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업혁신 대상' 2팀, '수업혁신 우수상' 5팀을 선발했다.

'수업혁신 대상(개인부문)'을 수상한 양현고등학교 최민지 영어 교사는 "평소의 수업과 수행평가 사례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데 의미를 뒀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참관객으로 참여해 준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더 큰 힘을 얻어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업혁신 대상(팀 부문)'을 수상한 미래교실을 찾는 샘(미찾샘)대표 교사인 전북사대부고 임이랑 교사는 "좋은 수업을 하고 싶고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팀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300여 명의 참관객들에게 잘 전달



지난 15일 전주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년 미래교육 여는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받은 양현고 최민지 교사(사진 왼쪽)와 팀 부문 대상을 수상받은 미래교실을 찾는 샘(미찾샘, 사진 오른쪽).

된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업혁신 우수상'을 수상한 전주초포초등학교 허정수 교사는 "선배들의 수업혁신 사례를 듣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 오히려 행복했다"면서 "이번에 함께했던 선배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수업에 대한 열띤 나눔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열린 수업혁신 발표대회에 직접 참가한 서거석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수업에 대한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내년에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수업혁신 발표대회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리가 만든 라디오방송입니다"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전주FM 방송 '우리 동네 음악 여행' 프로그램 제작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 재학생들이 전주FM(주파수 93.5MHz) 시민참여 방송 제작에 참여, 성공적으로 라디오방송 제작과 송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미네르바학부 재학생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의 다양한 가수와 음악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음악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다. 이들은 PD, 작가, 엔지니어 역할을

맡은, DJ까지 방송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 이번 시범방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주FM 방송국 운영진과의 반복적 소통을 통해 실전 방송에 필요한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한편 전주대 미네르바학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창의적인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주FM 방송국과 지속해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18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3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표창 수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올해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 수여

교직원 서동연·권혁선씨... 개인에 박지윤씨 등 4명 단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LH 전북본부 선정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5층 회의실에서 '2023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기부 교직원, 개인, 유학생, 단체 등의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총 12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기부 유공자는 재능, 봉사, 자원, 콘텐츠 기부로 이뤄진 교육기부 4대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 전북교육 발전 및 학교 현장 자원에 도움을 준 교직원, 개인, 유학생, 단체를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는 교직원은 특성학교 학생 제과제빵 실습 능력 향상에 기여한 서동연(한국치즈과학교)씨, 10년간 학생들에게 자원순환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계층 기부에 앞장선 권혁선(전주교)씨이다.

개인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기부 활동에 앞장서 온 박지윤씨, 도내 초·중·고 학생 진로와 직업선택 방향에 기여한 정상현씨, 직업계고 취업에 힘써온 김양수씨, 미래교육과 진로 교육지도에 앞장서 온 조진욱씨 등 4명이다.

단체는 19년 동안 사랑의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기여한 대한기계설비건

설협회, 통학버스 운영비 약 3억원과 안전우산 1,500개를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선정됐다.

또한 단터치, 유아신, 왕걸, 니탈리아 위자야 등 4명의 유학생은 도내 초등학교에서 자국의 언어, 문화, 자연환경, 특성 등을 소개하며 교육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전북도시가스(주)의 도서 기증 행사가 더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 한 해 교육기부 건수는 수혜 학교 106개교, 수혜 학생은 5,058명에 이른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부가 교육자원봉사로 확장돼 따뜻한 마음이 교육공동체 전체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게임·실감미디어 기업들과 산학협력

전주대, 8개 기업과 협약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한동승)은 지난 15일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게임 및 실감미디어 전문 기업 8개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전주대학교와 산업계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해 '첨단분야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실감미디어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공동연구 개발 수행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공동 제작 등이다.

한편 이번에 산학협력을 체결한 8개 기업은 (주)편잇, 델린트(주), (주)편웨이브, (주)소울게임즈, (주)이엔피이원, 스타라이크(주), (주)트라스튜디오, (주)루트쓰리게임즈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대학교는 지역의 핵심 게임, 실감미디어 기업들과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8개 기업은 전주대학교의 교육과정 참여,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다.

한동승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감미디어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글로벌 인재 양성은 물론 인턴십, 공동 연구 개발, 메타버스 공동 제작 등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게임 및 실감미디어 기업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구 학부모회 직원·사무실무사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은 18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 학부모회직원 및 사무실무사들이 전북교육청의 에듀테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강의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모로코와 관·학 협력 성과

유학생 5000명 유치·지역 특산품 해외 진출에 가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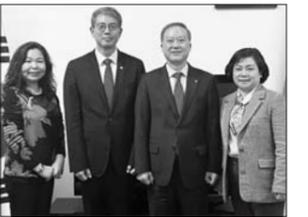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모로코 정부 기관들과의 관·학협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에서 양 총장은 정기용 주 모로코한국대사를 만나 모로코 유학생 유치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권 유학생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할탈 음식 도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모로코 고등교육부 Mohamed Khalafoui 사무총장(차관급)도 만나 모로코의 우수한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모로코 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모로코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및 모로코 상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한 Gaïne Abdelmalek을 만나 진안 홍삼을 홍보하기도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해외 출장을 통해 해외대학뿐 아니라 고등교육부, 지방정부, 대사관 등 주요 국가기관과도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 전북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일행이 정기용 주모로코한국대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를 만나 모로코 유학생 유치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의 범 지역적 협력과 연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대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지역 모두 해외 주요 대학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학생 5천 명 유치와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례 공유

도교육청, 성과보고회 열어... 내년 방향성 의견 나눔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2층 강당에서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및 희망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전북교육청이 기초학력 책임제를 10대 핵심과제로 삼아 운영해 온 1년간의 사업별 사례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운영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2023년을 성찰하고, 2024년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1수업2교사제), 두드림학교, 학습지원센터의 운영사례 등이다.

먼저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정책연구소 이순아 박사의 '2023년 기초학력 책임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2023년 학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리력 지도'와 학교구성원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2023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료

2023년 해외 문화체험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트남 해외 문화체험단 97명이 귀국하면서 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 문화체험이 막을 내렸다.

해외 문화체험은 지난 7월 일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12월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 483명이 다녀왔다.

학생 해외 문화체험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새 도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베트남 학생 해외 문화체험 연수단은 베트남 삼성R&D센터 방문해 2012년 이후 삼성이 베트남에서의 산업협력 및 사회 공헌활동으로 한국-베트남 양국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전북도교육청 해외 문화체험 일환으로 베트남으로 떠난 도내 학생들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여러가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삼성R&D센터의 여러 시설을 살펴봤다.

KOICA에서는 이정현 부소장으로부터 KOICA 베트남사무소가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해 직업훈련교육, 농업농촌개발 및 도시개발, 기후변화대응,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특히 지난 12일 저녁 박노환 전 대사의 특강과 13일 마련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두 명사는 베트남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